

碩士學位 請求論文

*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타난
克己主義와 汎愛精神

指導教授 金 秀 宗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 專攻

李 榮 振

1987年度

*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타난
克己主義와 汎愛精神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提出者 李 榮 振

指導教授 金 秀 宗

1987年 12月 日

李榮振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 審

卞 鐘 民



副 審

梁 永 洙



副 審

金 秀 亨



1987年 12月 日

目 次

I. 序 論	1
II. 象徵性和 主題意識	4
III. 克己主義와 汎愛精神	13
IV. 結 論	26
Bibliography	28
Abstract	29



I. 序 論

Ernest Hemingway, Dos Passos, F. S. Fitzgerald, William Faulkner 등 소위 “Lost Generation”¹⁾에 속하는 小說家들은 現代美國文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작가들이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하며 길 잃은 世代의 의미를 재발견하려고 애쓴 이들은 文學藝術을 통해 전쟁세대의 價値喪失을 투영함으로써 시대적 고뇌와 갈등을 진단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내놓은 주요 작품의 思想的 主題는 미국문명의 우수성 내지는 독자성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문명, 넓게는 서구문명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반발이었다. 1차대전은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적 이념과 가치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으며,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암담한 절망을 안겨 주었다. 이들 “Lost Generation”시대의 작가들은 전쟁터에서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살상과 파괴를 직접 경험하며 1차세계대전의 비극을 심각하게 체험한 작가들이다. 전쟁을 겪고난 그들의 정신세계는 절망, 허무감, 환멸, 방향상실, 자포자기, 사회의 의무에 대한 거부반응, 인간능력의 부정, 질서의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립된 개인의 정신적 방황이었으며 nihilism 그 자체였다.

이토록 무질서하고, 허무적이며, 혼돈된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Lost Generation”이며, Ernest Hemingway (1899~1961)는 이 作家群의 代表的 인물이라고 하겠다.

난폭하고 험난한 대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인간생활의 긴장속에 대결의식과 투쟁정신을 그 기조로 하여 일생을 살았던 Hemingway는 “삶”이라는 엄숙한 대상과의 대결 내지 투쟁의 역사를 그 작품속에 투영한 작가이다. 예컨대 “Soldier’s Home”에서 귀향한 병사 Krebs는 자신의 사회활동 시작을 종용하는 어머니에게 뚜렷한 거부반응을 보인다. “God has some work for everyone to do. There can be no idle hands in His Kingdom.”²⁾이라고 질책하는 어머니에게 “I’m not in His Kingdom.”³⁾이라고 대꾸한다. 이 선언은 최초의 단편집 “In Our Time (1924)”을 대표하는 주인공 Nick Adams와 *A Farewell To Arms*의

1) Gertrude Stein, *The Sun Also Ris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Introduction, iii

2) E. Hemingway, “Soldier’s Home”, *The Snows of Kilimanjaro and Other Stori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4), p. 90.

3) *Ibid*, p. 90.

Frederic Henry, *The Sun Also Rises*의 Jacob Barnes, *For Whom the Bell Tolls*의 Robert Jordan 과 같은 Hemingway 주인공들의 출발점이며, “the theme of exiled individual”⁴⁾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Alfred Kazin 은 Hemingway의 소설을 일컬어 “the stage for heroic combat between the individual and ‘in our time’”⁵⁾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친 Hemingway 작품의 주제는 작가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The Sun Also Rises*(1926)에서는 Paris와 Spain 여행을 통하여, 전쟁의 상처를 안고 허무속에 sensation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Jake, Brett, Cohn 등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separate world에서의 부정적인 人生觀이 나타나고 있으며, *A Farewell To Arms*(1929)에서는 Italy 전쟁의 참가를 통하여, 모든 가치체계와 질서가 무너져 버린 전쟁속에서 separate peace를 추구했으나 끝내는 사랑하는 애인마저 잃고 홀로 빗속을 걸어가는 주인공 Henry의 절망적인 人生觀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1940년에 출판된 *For Whom the Bell Tolls*에서 우리는 作家的 人生觀의 변화를 보게 된다. 즉, 절망과 허무의 삶을 극복하여 사회속에 뛰어드는 Jordan의 “The World is a fine place and worth fighting for and I hate very much to leave.”⁶⁾라는 말에서처럼 세상은 역시 살아서 투쟁해 볼 만한 곳이며 이러한 인간의 투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작품세계에서 알 수 있듯이 Hemingway는 사회적 관심과 참여속에서 생겨나는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으로부터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자세로의 사상적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人生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거치며 Hemingway는 作家的 성숙기에 도달하게 된다. *The Old Man and the Sea*(1952)는 Hemingway의 이러한 작가적 생애와 성장을 총체적으로 마무리짓는 大作이라고 하겠다.

Hemingway의 작품속에는 克己와 忍耐, 不敗精神의 넘치는 대목이 많이 나오지만 특히 *The Old Man and the Sea*는 試鍊을 克服하는 強靱한 stoicism의 威嚴으로 追眞感이 더욱 두드러진다. 낚시줄을 가운데 놓고 바다속과 배위에서 두 生靈이 서로 死力을 다하여 對決하는 場面과, 主人公 Santiago가 荒涼한 바다위에서 무수한 苦難을 이겨내고 이틀 밤 동안의 死鬪끝에 육중한 청새치를 낚아 올리는 대목은 stoicisim의 진면목

4) David D. Galloway, *The Absurd Hero In American Fiction*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70), p. 5.

5) Alfred Kazin, *Bright Book of Lif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p. 6.

6) E.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3), p. 440.

을 보여주고 있다.

Hemingway의 stoicism은 一般的인 意味로서의 “禁慾主義”와는 다른 것으로 “克己” “不敗精神”이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Hemingway의 stoicism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stoic endurance”로 단순히 破局을 참아내는 消極的인 stoicism과,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苦痛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아나가는 過程 하나 하나에서 삶의 緊張感과 充實感과 ecstasy를 느끼는 積極的인 stoicism이다.” 또한 “Hemingway의 文學理念속에 나타나는 stoicism은 作品에 投影된 實在事實, 즉 Hemingway 文學의 自敘傳的인 性格으로 인하여 萬人에게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닌 고유한 特色을 지니는 것이다.”⁸⁾

本 考는 이러한 Hemingway 文學思想의 귀결이며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Hemingway가 文學的 效果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 여러 象徴物들이 이 小說의 主題의 特性과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며, 나아가 이 小說의 가장 두드러진 主題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는 克己主義와 汎愛的 友愛精神을 연구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7) 金秉喆, 「헤밍웨이 文學의 研究」(서울: 乙酉文化社, 1968), p. 242.

8) *Ibid.*, p. 247.

II. 象徴성과 主題意識

작품의 내용에 못지않게 技巧 및 形式에도 치중한 Hemingway 文學에 있어서 symbolism 研究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Hemingway 가 문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symbolism 을 利用한 것은 內容의 豊富性을 부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은 또한 19세기 소설이 너무나 내용중심적인데 대한 反撥로서 形式을 강조한 20세기 소설의 경향에 呼應한 것이기도 하다.

M. H. Abrams 는 다음과 같이 symbol 에 대한 定義를 내리고 있다 :

A symbol, in the broadest use of the term, is anything which signifies something else : in this sense, all words are symbols. As commonly used in criticism, however, 'symbol' is applied only to a word or phrase signifying an object which itself has significance : that is, the object referred to has a range of meaning beyond itself.⁹⁾

Abrams 에 依하면 symbol 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conventional' 또는 'public' symbol 과 'private' symbol 이다. 예컨대 '십자가' '적색' '백색' '청색' '國旗' 등 그 象徴的 意味가 널리 알려진 것일 때 이것은 'public'한 상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지 않으나 이전부터 存在해 온 實體의 象徴的인 聯想을 獨特하게 擴張하고 다듬어서 작가 나름대로 사용한 상징이 'private'한 것으로 이는 해석상에 있어서 'public' 상징보다 더욱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Hemingway 는 *The Old Man and the Sea*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상징물들을 적절히 혼용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작품의 主題的 特性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Hemingway 자신은 *The Old Man and the Sea* 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

I tried to make a real old man, real boy, a real sea and a real fish and real shark. But if I make them good and true enough they would mean many things. The hardest thing is to make something really true and something truer than true.¹⁰⁾

9) Ursula Brumm, "Symbolism and the Novel," : *The Theory of the Novel*, ed. Philip Stevick. (N. Y. : The Free Press, 1967), pp. 354-55.

10) E. Hemingway (Time : Pacific Edition, Dec. 13, 1954).

이러한 작가의 의도하에서 창조된 주인공 Santiago 는 Hemingway 가 그의 긴 작가적 생애를 통해 오랫동안 모색하여온 理想的 人間像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Santiago 의 모습에는 克己하고 忍耐하는 人生의 참모습과 人間存在의 眞實과 誠實을 통해 깊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숭고한 인간의 image 가 담겨져 있다.

이 작품에서 바다로 대표되는 自然은 인간과 對立的으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漁夫의 生活터전이며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大自然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즉 ‘人生의 場’으로서 인간이 결국 언젠가는 되돌아 가게되는 永遠한 故郷으로 승화되어 있다. Hemingway 가 바다라는 자연을 통해 구현시키고자 한것은 自然과 人間과의 內的인 紐帶, 다시 말하면 人間이 죽어서 回歸해야만 하는 永遠한 母胎로서의 自然이었던 것이다. *Odyssey* 나 *Moby Dick* 같은 위대한 文學作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作家들에게 바다는 人間과 宇宙의 깊은 眞實을 포용하고 있는 大自然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들은 오직 인간이 바다의 삶속에 포함되고 참가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다. Hemingway 는 *The Old Man and the Sea* 를 구성함에 있어서 바다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image 를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Santiago 에게 있어서 바다는 젊은 어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開拓을 위해 客觀化할 수 있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人格體로서 간주되고 있다. Hemingway 는 또한 바다가 변덕스럽고 친절하며 잔인한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적인 image 를 부여하고 있다 :

They (fishermen) spoke of her (sea) as a contestant or a place or even an enemy. But the old man always thought of her as feminine and as something that gave or withheld great favours, and if she did wild or wicked things it was because she could not help them. The moon affects her as it does a woman.¹¹⁾

Santiago 는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도 조금도 실망하거나 비관하는 일없이 “my big fish must be somewhere”라고 말하면서, 그는 항상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希望과 信念의 태도가 확고부동하며, 자신의 不幸에 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듯 不運이나 逆境에 처해 있으면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할 수 있는 “stoic endurance”는 破局을 忍耐로 극복하는 克己主義의 한 표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Stoicism 의 哲學的 意味를 살펴볼때, Stoicism 의 哲學的 分析은 古代 希臘의 Stoa 學派에 그 根幹을

11) *Ibid.*, p. 24.

두고 있다. 이 學派의 중심 思想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 理性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理性은 또한 이 宇宙와 自然을 지배하는 법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인간다운 생활, 인간의 本性에 맞는 생활은 自然에 順應하는 生活이다. 그들의 見地에서는 天理와 人道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宇宙의 理法인 로고스가 곧 神이라고 보아 汎神論의인 色彩를 띠고 있다. 宇宙의 理法인 神의 攝理는 필연적인 것으로 意志가 있는 인간이나 意志가 없는 기타 萬物을 막론하고 이 필연적인 攝理, 즉 天命에 따라야 한다. 「天命을 欲求하는 者는 이를 善導하고, 欲求하지 않는 者는 이를 이끌고 간다」라고 Stoa 學派에서는 말한다. 이 말은 自然에 順應해서 생활하라는 그들의 motto와 견주어 볼 때에 당시와 같은 世態에서도 自然과 天命에 순진스럽게도 자신을 내맡기려는 樂天的인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自暴自棄하는 태도는 아니다. 그것은 不動心을 말하는 그들의 태도로 보아 명백한 일이라 하겠다.

큰고기 marlin 과의 死鬪가 계속되는 동안 이 老人은 다음과 같이 독백을 반복하며 Manolin 소년의 不在를 안타까와 한다 :

'I wish the boy was here' he said aloud and settled himself against the rounded planks of the bow and felt the strength of the great fish ...¹²⁾

Aloud he (Santiago) said, 'I wish I had the boy'. But you haven't got the boy, he thought. You have only yourself and you had better work back to the last line now ... (p. 44)

If the boy were here he could rub it for me and loosen it down from the forearm, he thought. (pp. 53~54)

이토록 Santiago 는 Manolin 소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망망대해에서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하며 더욱더 투혼을 불사른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바다에서 marlin 과 처절하게 싸움을 하며 외치는 老人의 절규는 그만큼 결사적인 것이다 :

If the boy was here he would wet the coils of line, he(Santiago) thought. Yes. If the boy were here. If the boy were here. (p. 73)

12) E. Hemingway, *The Old Man and the Sea*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68), p. 42.

以下 本文의 引用은 이 Text 에 따르며 引用文 末尾의 괄호에 page 를 明示키로 한다.

무슨 魔法에라도 걸린 것처럼 Manolin 소년을 생각하는 絶叫뒤에는 老年에 처한 한 人間의 極限的 勇氣가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 Baker 는 Manolin 소년이 노인에게는 “勇氣의 源泉인 供給者로서의 lost youth 에 대한 憧憬”¹³⁾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필사적으로 투쟁하여 marlin 과의 싸움이 끝나고 승리가 돌아오자 Santiago 는 얼마동안 소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암흑같은 물속에서 상어떼가 습격해 올 기미를 알게되자 노인의 腦裡속에는 소년의 image 가 또다시 想起되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Besides, he thought, everything kills everything else in some way. Fishing kills me exactly as it keeps me alive. (p. 95)

노인이 “keep me alive”라고 하는 것은 fishing 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love 와 care 에 그 原動力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란 “The boy keeps me alive, he thought. I must not deceive myself too much.”라고 말하는데서 나타나듯이 바로 Manolin 소년인 것이다.¹⁴⁾

노인이 오두막집에서 잠을 깨고는 소년과 情談을 나눌때 노인은 individualism 을 포기하고 interdependence 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쁨에 넘쳐있음이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인 다음의 구절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

‘The ocean is very big and a skiff is small and hard to see,’ the old man said. He noticed how pleasant it was to have someone to talk to instead of speaking only to himself and to the sea. (p. 112)

이처럼 소년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의 정신은 자신의 적수였던 marlin 은 물론 바다에게 까지 확대되어 汎愛的 영역으로 확대된다. 악전고투끝에 낚은 대어 marlin 을 상어떼에게 빼앗기게 되자 노인은 “‘I shouldn’t have gone out so far, fish.’ he said. ‘Neither for you nor for me. I’m sorry, fish.’” (p. 99)라고 후회를 한다.

13) Carlos Baker, *Hemingway : The Writer As Artist*. (New York : Princeton Univ. Press, 1972), p. 304.

14) 김병철, *op. cit.*, p. 176.

이러한 Santiago 의 후회어린 독백은 人間의 isolated individualism 을 부정하고 人間과 自然의 interdependence 를 신뢰하는, 즉 인간과 자연의 紐帶를 강조하는 汎愛的 友愛精神의 發露하고 하겠다.

다음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baseball 과 lions 의 상징들을 살펴보겠다.

Hemingway 는 Manolin 소년과의 human solidarity and interdependence 의 theme 을 보강하기 위하여 baseball 과 lions 의 symbol 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노인은 다음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野球를 잘알고 사랑할 뿐 아니라 항상 야구를 생각하고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

'Yes, I have yesterdays paper and I will read the baseball.(p.12)

'And the rich have radios to talk to them in their boats and to bring them the baseball.(p.33)

야구는 Hemingway 가 종전의 短篇에서 즐겨 다루던 個性的 경기인 투우, 사냥, 낚시 따위와 같은 개인중심의 것과는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경기는 team work, team spirit 가 적실히 필요한 운동으로서 고도로 발달한 team sports 이다. marlin 과의 결사적인 투쟁과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즐기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야구시합이며, "the grand leagues"에 대한 매일 매일의 結果를 대단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

I wonder how the baseball came out in the grand leagues today, he thought. It would be wonderful to do this with a radio. Then he thought, think of it always.(p.40)

He felt very tired now and he knew the night would come soon and he tried to think of other things. He thought of the Big Leagues, to him they were the *Gran Ligas*, and he knew that the Yankees of New York were palyng the *Tigres* of Detroit.(p.59)

老人이 야구를 생각할 때 그의 머리에는 항상 New York Yankees Team 의 선수 DiMaggio 의 모습이 떠오른다. 노인이 DiMaggio 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또 그를 崇拜하는데는 이 老漁夫와 마찬가지로 DiMaggio 의 부친도 어부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동질적인 공감대를 느끼는 것 이외에도 Santiago 는 또한 야구 선수인 DiMaggio 가 그의 발꿈치 bone spur 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그의 화려한 선수생활

을 장식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고 있다 :

This is the second day now that I do not know the result of the *juegos*, he thought. But I must have confidence and I must be worthy of the great DiMaggio who does all things perfectly even with the pain of the bone spur in his heel. What is a bone spur? he asked himself.(p.59)

Santiago 는 발꿈치 부상의 고통을 이겨낸 DiMaggio 로부터 역경을 감내하는 克己主義의 교훈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Santiago 에게 있어서 DiMaggio 는 行動의 基準과 指針의 역할이며 동시에 *giver of strength and vitality* 를 상징하는 人物인 것이다.

Hemingway 가 묘사한 lions 도 DiMaggio 와 똑같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인의 꿈속에 나타나는 獅子는 百戰의 王으로서 自尊心이 강하고 힘이 센 young lions 로 이는 *isolated individualism* 과 *pride* 의 權化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다 :

He only dreamed of places now and of the lions on the beach. They played like young cats in the dusk and he loved them as he loved the boy. He never dreamed about the boy.(p.20)

노인의 꿈속에 나타나는 젊은 사자들은 평화스럽게 노는 모습 그대로 폭력적인 요소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Baker 는 Manolin 소년과 young lions 에 대한 Santiago 의 회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They help in a very notable way. For the boy and the lions are related to one of the fundamental psychological laws of Santiago's — and indeed of human-nature. This is the constant wave like operation of bracing and relaxation. The boy braces, the lions relax, as in the systolic-diastolic movement of the human heart. The phenomenon is related to the alternation of sleep and waking through the whole range of physical nature ...

The planned contiguity of the old man with the double image of the boy and the lions converts the story of Santiago, in one of its meanings, into a parable of youth and age.¹⁵⁾

15) Carlos Baker, *op. cit.*, pp. 308-9.

이렇게 사자의 꿈을 꾸면서 Santiago 는 새로운 용기와 의욕과 희망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Manolin, lions, DiMaggio 는 각각 나름대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Santiago 노인의 정신세계를 왕래한다. 예컨대 Manolin 소년은 lost youth 에 대한 동경의 symbol, DiMaggio 는 stoicism 의 symbol 로, lions 는 givers of strength and purity 의 symbol 로 작용한다. 또한 Santiago 가 어렵게 잡은 marlin 을 이끌고 항구로 들어오는 도중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shark 는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vice 의 symbol 인 것이다.

다음은 *The Old Man and the Sea* 에 나타난 基督敎的 色彩, 즉 Christ symbol 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Barker 가 “To me the novel is Christian in context, and old fisherman is suggestive of Christ.”¹⁶⁾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Christ symbol 이 여러가지 手法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품 서두에서 “He was an old man who fished alone in a skiff in the Gulf Stream.”라고 소개되는 주인공 Santiago 라는 이름 부터가 기독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Melvin Backman 에 依하면 Santiago 는 聖書에 나오는 人物인 Saint James 에 대한 스페인 어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

Santiago is Spanish for Saint James-the fisherman, apostle, and martyr from the Sea Galilee.¹⁷⁾

Santiago 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에서 Santiago 의 意味 자체가 이 作品의 主題 전체를 支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fisherman 으로서 Santiago 는 무슨일이 있어도 marlin 과의 싸움에서 marlin 을 쓰러뜨려야만 하고 apostle 로서 Santiago 는 Manolin 소년과의 관계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게된다. 실제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 즉 生計의 方法을 가르쳐 주었고, 善良한 人生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自尊心과, 謙遜한 마음으로 人生의 바다를 건너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한편 martyr 로서 Santiago 는 汎愛的 友愛精神으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게 된다.

바다로 떠난 첫날 正午에 老人은 작살을 marlin 의 심장에다 들이박아 그것을 결국은 죽이고 만다. 그후 물러드는 상어떼에게 marlin 의 살을 전부 빼앗기고 陸地에 오른 노인

16) *Ibid.*, p. 299.

17) Melvin Backman, “Hemingway : The Matador and the Crucified,” *Modern Fiction Studies*, (August, 1955), p. 256.

은 돛을 어깨에 메고 그의 오두막집으로 向한다. 그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큰고기의 머리와 흰 두개골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피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나를 깨닫는다. Santiago 노인이 돛대를 메고 몇번이고 넘어지며 그의 오두막이 있는 언덕을 오르는 모습은 十字架를 메고 끌고나 언덕을 오르는 예수상(像)에 비유될 수 있다. 다음날 아침 노인의 오두막집으로 온 소년의 눈에 비친 노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his face down on the newspapers with his arms out straight and the palms of his up.
(p. 110)

이처럼 손바닥을 위로하고 내뻗은 그 손에 남은 傷痕은 그의 死鬪를 말해주며, 그 평온히 잠을 자는 그 至誠을 다한 者의 조용하고 경건한 모습은 殉教者 그대로의 모습이다. 讀者의 마음을 끄는 場面은 老人이 marlin을 죽이는 장면보다도 노인이 받는 受難의 장면이다. 노인이 수난을 받을때에 우리의 뇌리에 깊이 못 박히는 image는 작은 배에 샷대를 굳게 딛고 버티는 모습이다. 이 샷대는 예수가 등에 짊어진 十字架와 同一한 symbol이라고 Backman은 인정한다.¹⁸⁾ 제2·제3의 상어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老人은 분노에 싸여 “Ay”하고 絶叫한다. 이 “Ay”에 대해 Hemingway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There is no translation for this word and perhaps it is just a noise such as a man might make, involuntarily, feeling the nail go through his hands and into the wood. (p. 96)

이에 대해 Backman도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Ay’, he said aloud. There is no translation for this word and perhaps it is just a noise such as a man might make, involuntarily, feeling the nail go through his hands and into the wood.” He fought the sharks through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and the night, until he was almost dead ; but the “pain of life” in his hands and shoulders told him otherwise.¹⁹⁾

요컨대 예수가 십자가에 묶기어 손에 못이 박힐 때 부르짖는 신음소리와 거의 같은 절

18) Backman, *op. cit.*, p. 256.

19) *Ibid.*, p. 143.

규로 해석될 수 있겠다.

Hemingway가 예수 수난의 symbol을 이 작품에서 Christ allegory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소위 그의 dignity of humanism, 즉 philosophy of manhood의 차원을 한층 더 높여 宗教의 수준까지 올려 놓았다는 意義를 갖는다. 즉 Hemingway는 Christ symbol를 통해 人間이 수난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는 human side of God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作中에서 Christ symbol이 등장하는 때는 Santiago가 심각한 생의 위기와 처참한 수난에 몸부림치는 순간이다. Santiago가 조각배의 Wood of the bow를 굳게 딛고 버티는 때나 marlin과 투쟁이 벌어지는 밤, 그리고 수난이 끝난 후 침대위에 엎드려 있는 노인에게 Manolin 소년이 애처로움을 달래며 커피와 먹을 것을 가지러갈 때 “cry”라는 말이 몇번 나온다. 이것은 Hemingway가 Santiago의 수난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Christ symbol로서의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²⁰⁾



20) 김병철, *op. cit.*, p. 235.

III. 克己主義와 汎愛精神

*The Old Man and the Sea*의 主題는 다음 引用文에서 볼 수 있듯이 승리자는 자신의 힘의 한계까지 싸웠다는 느낌만을 가질 뿐 결국은 패배하고 만다는 것이다 :

The old man loses the battle he has won. The winner takes nothing but the sense of having fought the fight to the limits of his strength, of having shown what a man can do when it is necessary. Like many of the rest of us, he is undefeated only because he has gone on trying.²¹⁾

Hemingway는 1936年 4月 “Esquire”紙에 “On the Blue Water”라는 書簡體 essay를 발표했다는데, 거기에는 이 작품의 母體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Another time an old man fishing alone in a skiff out of Cabanas hooked a great marlin that ... pulled the skiff far out to sea. Two days later the old man was picked up by fishermen sixty miles to the eastward, the head and forward part of the marlin lashed alongside. What was left of this fish, less than half, weighed eight hundred pounds. The old man had stayed with him a day, a night, a day and another night while the fish swam deep and pulled the boat. When he had come up the old man had pulled the boat up on him and harpooned him. Lashed alongside the sharks had hit him and the old man had fought them out alone in the Gulf Stream in a skiff, clubbing them, stabbing at them, lunging at them with an oar until he was exhausted and the sharks had eaten all that they could hold. He was crying in the boat when the fishermen picked him up, half crazy from his loss, and the sharks were still circling the boat.

여기에 등장하는 老人이 Santiago의 모습이며, 孤獨한 노인의 忍耐와 勇氣를 主題로한 象徴的인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The Old Man and the Sea*의 主人公은 Santiago라는 老漁夫이다. 그는 오랜 漁夫生活에서 그 나름대로의 人生觀이 있고 自信感이 있으며 世上을 보는 눈이 있다. 밀가루 포대로 만든 누더기 돛을 세우고 거룻대로 Mexico灣을 向해서 고기잡이를 나가지만 84日

21) Carlos Baker, *op. cit.*, pp. 293~94.

間이나 凶漁가 계속된다. 노어부는 이미 아내를 잃었고 지금은 고독하다. 그러나 이런 環境에서도 그는 결코 絶望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希望을 잃지 않으며 항상 忍耐와 勇氣를 지니고 있다. Santiago는 가난하지만 바다는 한없이 풍성하다. 그는 흔히 보는 젊은이들처럼 血氣旺盛하고 勇敢하여 큰일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逃避하지 않는다. 비록 몸은 늙고 지쳐있지만 눈만은 바다와 같이 푸르고 生氣에 넘쳐 있으며 꺾일줄 모르는 氣概가 엿보인다.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고기와 死鬪 끝에 몸은 지쳐갔지만 끝내 뼈대만 남은 고기라도 항구로 끌고 돌아온 그에게는 분노와 아쉬움도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상대와 싸워 이겼다는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집에 돌아와 失神상태로 잠든 노인은 아무 친족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몸이지만, 대자연의 힘에 대항하여 싸우는 人間의 勇氣와 意志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破壞는 당할 수 있을지언정 敗北를 모르는 鬪爭 그 자체를 중요시 한다. 大自然에 대하여 人間의 肉體는 보잘것 없는 것이며 점점 파멸되어 가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精神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인간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苦難과 逆境을 寬容과 忍耐로써 克服하여가는 인생태도에서 誠實하고 崇高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노쇠한 몸으로 자기를 엄습해 오는 온갖 인생의 고통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고독하고 비참한 상태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과감하게 투쟁하는 인생태도를 老人 Santiago의 다음 말에서 실감할 수 있다.

Pain does not matter to man. (p. 75)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p. 93)

이렇게 대자연의 힘에 대항해서 싸우는 인간의 용기와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의 武勇에 관한 것만으로는 이 작품이 讀者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데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런것들은 이 작품의 表面的 價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의 內面的 價値는 바로 노인의 마음과 소년의 마음사이의 상호이해와 신뢰의 바탕위에 이루어진 人間愛, 한 마리의 조그만 새에 대해서도 측은한 생각을 하는 汎愛精神, 또 노인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인간적인 克己의 정신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Santiago에게는 참을성이 있고 pride가 있으며 그것을 堅持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굴욕을 참으며 끝까지 자신의 pride를 지키고 있다. 그는 다른 어부들이 運이 다한 노인이라고 경멸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한편 지금껏 徒第로서 따르던 Manolin 소년이 부모의 반대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배로 떠났지만 그는 그런 처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는

커녕 오히려 부모의 말을 따르라고 타이르는 마음속에는 그 자신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다:

Some of his resolve derives from pride in his skill. No fisherman reads sky and sea with greater assurance: none drops bait straighter or more precisely.²²⁾

고기잡이를 運에 맡기는 것보다 자신의 技術과 정확한 동작과 오랜 경험에 의지하려는 老人의 태도에는 人間이 걸어야 할 正道의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少年에게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이 正道에 根據한 진실어린 행동과 실천이다. 소년이 노인을 알고 믿는 熱意도 대단하며 그가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84日間の 凶漁 끝에 먼바다로 나온 Santiago는 85일째 되는 날 한낮에 깊이 600 feet의 난바다(沖)에서 한마리의 거대한 청새치가 낚시에 걸렸다. 힘에 겨운 고기와의 死鬪가 시작된 것이다.

Santiago는 marlin과의 힘에 겨운 싸움중에 不屈의 DiMaggio를 생각한다. 발뒤꿈치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견디며 싸워나가는 DiMaggio는 老人이 찬양하는 人生의 절대적 目標로서, 그를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힘을 내는 것이다. marlin과의 싸움에서 가장 힘에 겨워 불리하고 어려울 때 Santiago는 또한 과거에 온종일 屈하지 않고 팔씨름을 했던 일을 생각한다. Morocco의 항구도시 Casablanca의 酒幕에서 그 부두 제일의 흑인 壯士와의 팔씨름이었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내기에 돈을 걸었으나 밤새도록 승부가 나지않자 돈을 건 사람들이 비긴것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Santiago는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의 팔을 식탁위에 눕히고 말았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본 Africa 海岸의 모래사장에서 놀던 새끼 사자들을 꿈꾸어 그들의 grace, strength, dignity를 생각하며 난경에 처한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Santiago에게는 每日 每日이 새롭고 순간 순간의 意義는 매우 크다. 그는 2日間 밤과 낮을 marlin과 싸웠으며, 한손으로는 다랑어를 날고기채 잘라먹고 맹물을 마시며 힘을 돌구었다. 굵은 낚시줄에 쓸려서 어깨가 쓰리고 손바닥이 갈라지는 상처를 입고 피로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싸움을 늦추지 않고 승리를 위해 온 知慧와 힘을 경주한다. 드디어 3일째 되던 날 正午무렵에 마침내 水面에 떠오른 큰 청새치를 작살로 찍어서 잡았다. 너무 육중하기 때문에 배에 신지 못하고 배곶에 매달았다. 이와 같이 千辛萬苦 끝에 낚아

22) Arthur Waldhorn, *A Reader's Guide to Ernest Hemingwa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5), p. 190.

울린 청새치를 끌고오는 도중에 피줄기를 추적하여 연이어 습격해온 상어떼에게 고기를 모두 뜯겼다. 상어의 습격도 온힘과 수단을 다하여 물리치려고 하였지만 力不足으로 끝내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싸움끝에 잡은 捕獲物은 잃었지만 남은 큰뺨로 해서 그의 威信은 섰으니 pride는 계속 유지되었고 鬪志와 自信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따라서 Santiago는 또 來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벋전에 잡아맨 marlin을 상어떼가 습격해 올때 그들에게 대항하면서 Santiago는 자신에게 敗北는 있을 수 없다는 강한 執念을 보여준다. Santiago는 잡았던 물고기는 잃었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屈하지 않았으며, 그것으로 人生의 眞實을 體得한 것이다. 끝까지 最善을 다한 그는 스스로 부끄러울 것도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바다에서 영원히 변치않는 흐름 Mexico 灣流에 조각배를 띄우고 자신도 영원히 변치않는 '價値'를 남은 老漁夫 Santiago는 Hemingway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人間像이며, 아울러 Santiago의 모습은 모든 人間生存의 眞實인 동시에 生에 대한 誠實한 태도에 기인되는 것이며 삶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은 Santiago와 Manolin 소년과의 相互信賴에 깃든 友愛精神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老人은 苦難에 처하고 失意에 잠길 때마다 少年을 생각했고, 少年을 생각하면 새로운 勇氣가 용솨음쳐 오르며 다시금 信念을 갖고 行動을 하게 된다. Manolin 少年을 생각하는 Santiago의 獨白은 다음과 같이 여러번 나온다 :

Now I will pay attention to my work and then I must eat the tuna so that I will not have a failure of strength.

"I wish the boy were here and that I had some salt," he said aloud. (p. 48)

"I told the boy I was a strange old man," he said. "Now is when I must prove it."

The thousand times that he had proved it meant nothing. Now he was proving it again. Each time was a new time and he never thought about the past when he was doing it. (p. 53)

If the boy were here he would wet coils of line, he thought, Yes. If the boy were here. If the boy were here. (pp. 74~75)

그러나 少年과 함께 있는 것은 許諾될 수 없는 일이었다. Santiago 혼자 만이 고난을 참고 自己의 運命을 완수해야했다. Harada Keiichi는 Santiago가 Manolin 少年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In the course of various trials and sufferings, the old man wished that the boy could be with him to help, but it is not to be permitted, for he alone has to endure the sufferings to fulfill his destiny. Thus, the ocean becomes a place where the old man searches his own identity through the act of pursuing the fish.²³⁾

Santiago 는 漁夫로서 고기를 잡아 죽이는 自己의 行動을 正當化시키려다 문득 少年을 생각하고 사랑의 世界를 實感한다 :

"I killed him in self-defense," the old man said aloud. "And I killed him well."

Besides, he thought, everything kills everything else in some way. Fishing kills me exactly as it keeps me alive.

The boy keeps me alive, he thought. I must not deceive myself too much. (pp. 97~98)

상어와의 必死的인 싸움을 통해서 人間 相互間의 紐帶와 사랑을 깨달으며 삶의 참뜻을 생각함으로써 大漁를 잃어 버리고도 마음의 평온은 잃지 않는다 :

I cannot be too far out now, he thought. I hope no one has been too worried. There is only the boy to worry, of course. But I am sure he would have confidence. Many of the older fishermen will worry. Many others too, he thought, I live in a good town. (pp. 106~7).

Carlos Baker 에 의하면, Santiago 에게 있어서 Manolin 의 意味를, 잃어버린 젊음을 상기시켜 힘을 분발하게 만들며 또한 양아버지(adopted father)에 대한 아들의 사랑과도 같다고 하고 있다. 또한 Clinton S. Burhans, Jr.는 이와 같은 관계를, 人間集團에 대한 個人의 紐帶意識이 고조에 도달되었을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次元높은 사랑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

Since 1937, Hemingwa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sm and interdependence, and *The Old Man and the Sea* is the culminating expression of this concern in its reflection of Hemingway's mature view of the tragic irony

23) Keiichi Harada, "The Marlin and the Shark," *Hemingway and His Critics*, ed. Carlos Baker, (N. Y. : Hill and Wang, Inc., 1962), pp. 270~71.

of man's fate ; that no abstraction can bring man an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olidarity and interdependence without which life is impossible ; he must learn it, as it has always been truly learned, through the agony of active and isolated individualism in a universe which dooms such individualism.²⁴⁾

한편 金秉喆은 Santiago 와 Manolin 少年과의 관계를 友愛精神과 汎愛精神으로 해석하며, Hemingway 는 人類의 一員으로서 人間을 사랑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汎愛精神의 體得者라고 말한다. Hemingway 가 사랑의 問題에 있어 友愛精神에 국한하지 않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汎愛精神에까지 그의 사랑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그의 誠實性이 聖者的인 境地에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사랑이 “生命秩序로서의 人間의 誠實性”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絶對的임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생명질서의 내용인 道德的 秩序와 超越的 秩序의 兩面을 包括해야 하는데 道德的 秩序는 有限的인 友愛精神을 의미하고 超越的 秩序는 無限的인 汎愛精神을 의미한다. 本質的인 사랑은 이 兩者를 다같이 內包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Santiago 의 汎愛精神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은 바다란 自然을 “lamar”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스페인어의 여성명사로 바다를 사랑할 때 즐겨쓰는 말이다. 젊은 어부들, 낚시줄을 띄우기 위하여 고무부표를 사용하고, 상어의 간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발동선을 사들인 사람들은 바다를 남성명사인 “elmar”라고 불렀다. 그들은 바다를 자기네들의 경쟁자이고, 일터이고, 때로는 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老人은 항상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하였으며, 바다는 타인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고, 좋은 일을 인간에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바다가 거칠어진다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바다 자신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달이 우리 인간의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듯이 바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매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노인에게는 자연은 인간을 적대시한다기 보다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부드러운 존재로 생각되고, 말하자면 영원한 마음의 고향처럼 인식되어 진다. 여기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은 없다. 자연의 법칙을 앎으로써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母胎로 바라보기 때문에 노인과 바다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親和關係가 유지되어 있

24) Clinton S. Burhans, Jr., “The Old Man and the Sea : Hemingway’s Tragic Vision of Man,” *Hemingway and His Critics*, ed. Carlos Baker, (N. Y. : Hill and Wang, Inc., 1962), p. 260.

다. 따라서 노인에게는 하찮은 “휘파람새” 한 마리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게 된다.

A small bird came towards the skiff from the north. He was a warbler and flying very low over the water. The old man could see that he was very tired. The bird made the stern of the boat and rested there. Then he flew around the old man's head and rested on the line where he was more comfortable. "How old are you?" the old man asked the bird. "Is this your first trip?" The bird looked at him when he spoke. He was too tired even to examine the line and he teetered on it as his delicate feet gripped it fast. "It is too steady. You shouldn't be that tired after a windless night. What are birds coming to?" The hawks, he thought, that come out to sea to meet them. But he said nothing of this to the bird who could not understand him anyway and who would learn about the hawks soon enough. "Take a good rest, small bird", he said. "Then go in and take your chance like any man or bird or fish."

It encouraged him to talk because his back had stiffened in the night and it hurt truly now. "Stay at my house if you like, bird", he said. "I am sorry I cannot hoist the sail, and take you in with the small breeze that is rising. But I am with a friend. (p. 47~48)

라고 自然에 대한 友愛精神을 나타내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Baker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His grateful sense of brotherhood with the creatures of the water, and air is, though full of love, essentially realistic and unsentimental. His implied or overt comparisons between subhuman and human brothers often open out, therefore, in as many directions as our imaginations wish to follow. A memorable example of this tendency appears in the incident of the land bird, a warbler, which comes to rest on Santiago's skiff far out at sea.²⁵⁾

라고 한 마리의 "warbler"에 나타나 노인 Santiago 의 애정의 감정을 말하고 있다. Hemingway 가 이런 汎愛精神의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The Sun Also Rises* 에서 부터 *The Old Man and the Sea* 까지 오랜 세월의 경과가 있었으며, 거기에 이르기까지에는 단편적인 사상의 변천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

25) Carlos Baker,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2), p. 162.

러한 友愛精神이 *The Sun Also Rises* 에서 부터 *The Old Man and the Sea* 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문제속에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대인관계를 흔히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인물과 우애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것이 모든 세상사람들의 통상적인 갈망이겠지만, Hemingway 는 세상의 통례에 어긋나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졌으며, 그것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성실성을 증명하는 오히려 聖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성실한 인간상의 일면이라 하겠다. 여기서 Santiago 라는 노어부 그 자체부터가 자연적인 우주의 한 부분임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집은 바다이며, 그의 피부는 우애깊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갈색으로 그을려져있고, 그의 눈은 바다의 색깔과 같으며 두손위의 상처는 사막에서의 침적처럼 오래된 것이다. 萬象이 그의 친구이며 형제이기에 노인은 물고기와 새와 별들을 향하여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다 :

I am as clear as the stars that are my brothers. Still I must sleep. They sleep and the moon and the sun sleep and even the ocean sleeps sometimes on certain days when there is no current and a flat calm. (p. 68)

노인에게는 별 그리고 보라빛 바다에서 보는 물고기들도 다 그의 형제자매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宇宙의 萬象은 靈과 관련하고, 그것은 각기 어딘가에 靈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영구불멸하다는 범신론적인 태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주를 하나의 체계화된 全一體라고 생각하여 神과 一體라고 보며 동시에 우주에 있어서의 靈性を 강조한다. 노인은 자기 스스로를 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듯이 그는 기성세대의 소위 문화나 종교 등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노인은 자연적 우주에 그 자신을 맡기고 있다. 이 소설에서의 주된 행위가 고기잡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의 완전한 例가 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일정한 단계를 갖고서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생물과 무생물, 자연과 인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존재의 價値秩序가 확립되며, 이런 자연적 질서속에서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자연법칙이기에 노인은

But it is good that we do not have to try to kill the sun or the moon or the stars. It is enough to live on the sea and kill our true brothers.(p.66)

라고 물고기를 낚는 일은 자연의 법칙에 어그러지지 않지만, 해와 달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은 自然法則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믿는다. 노인 스스로가 자연의 법칙, 즉 자연의 질서속에서 적응하여 생활해 나가고 있다. 모든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떠난 자연인으로서의 노인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우주에 확고부동한 생각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인과 marlin과의 싸움도 자연의 법칙에 어긋남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즉 자기보존을 위하여 어떻게 각자가 최선을 다 하느냐에 있다.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투쟁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Santiago는 물고기를 죽이려 하면서도 敵意는 없고 오히려 연민마저 느끼며 그 연민은 형제애로 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You are killing me, the old man thought. But you have a right to. Never have I seen a greater, or more beautiful, or a calmer or more noble than you, brother. Come on and kill me. I do not care who kills who. (p. 82)

여기서 우리는 노인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씨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인간이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고 까지 생각될 정도로 인간과 만물이 동일차원에 놓여졌음을 볼 수 있다. 노인이 고기잡이를 나가는 것은, 노인 자신이 고기잡이 항해중에 노상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가 “that was the thing that I was born for”(p. 43)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주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와같은 성품을 지닌 어부에 있어서 이러한 맹세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어부로서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그가 그 책무를 완전히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떤 괴로움이나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운명을 이겨내야만 한다. 여러가지의 시련과 고통의 과정에서 노인은 소년이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자신의 운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그는 홀로 고통을 견뎌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노인이 고기를 추적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Hemingway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人間의 image는 人間의 內面과 外面과의 分裂이 없는 行動的인 人間의 image이다. 다시 말하면 現實世界에 있어서 他人과 對決하며 他人을 敵으로 삼고 他人의 內面性을 否認하는 그와 같은 人間과는 본질적으로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다. Hemingway가 나타내는 人間의 鬭爭은 外面性에 限定되어 內面的인 意志를 否定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Santiago의 人間과의 關係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醇化된 次元에 있어서의 人間關係이고, 이와 같은 인간의 對決의 對象은 他者가 아니라 自己自身일

수밖에 없다. Santiago 는 marlin 과의 싸움에서도 大漁를 否定하는 일이 없었으며 오히려 憧憬心과 愛情이 충만했고 드디어는 곧 이와 같은 境地는 죽음의 공포심을 克服하고 超越한, 즉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自己의 存在를 確認하게 되는 경지라고 하겠다. 이런 경지에서 만일 우리는 友愛精神과 汎愛精神의 一致點을 찾게 된다.

이러한 우애정신과 범애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Santiago 는 온 世上 사람들을 초월해서 자기 혼자 바다밖으로 멀리 나갔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大漁까지 망쳤다고 생각한다. 즉 노인은 자기의 個人主義와 自尊心과 慾望에 의해 자신뿐만 아니라 고기에게도 暴力과 破壞를 가져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혼자 멀리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最大의 힘과 勇氣와 威嚴과 品格과 사랑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人間의 運命이란 궁극에 이르러서는 悲劇的인 irony 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Hemingway 가 발견한 悲劇的인기는 하나 高貴한 人間像이다.

Santiago 의 孤獨은 一面 현실적인 환경에 의해서 外部로부터 강요된 점도 있다.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唯一한 벗인 Manolin 少年도 그의 不運때문에 아버지의 命令으로 다른 배에 옮겨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높은 次元에서 생각해 볼 때 老人이 홀로 남는 것은 극히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는 自己의 운명과 정면에서 대결해야만 했고 또한 그와 같은 고독한 체험속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궁극적인 自己存在의 確認은 고독한 個體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Santiago 는 이러한 외로움속에서 大漁 및 상어떼와의 싸움을 오직 인내와 정신력으로 이겨내어 삶의 참뜻을 實感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漁夫들이 그를 놀러댔지만 그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다.

“Can I offer you a beer on the Terrace and then we'll take the stuff home.”

“Why not? the old man said. Between fishermen.” They sat on the Terrace and many of the fishermen made fun of the old man and he was not angry. Others, of the older fishermen, looked at him and were sad. (p. 3)

또 그는 일단 양보하면 지나버린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양보했다고 해서 自己의 참된 自負心이 損傷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老人의 이와 같은 單純한 性品은 오로지 全力을 다하여 살아가는 人間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特性인 것이다. 人間이 自己에게 주어진 現實에 대해서 진지하면 할수록 “너”와 “나”의 대립된 次元에서 “우리”의 次

元으로 옮겨진다고 하겠다. 그는 人間이 할 수 있는 일과 참아낼수 있는 일의 한계에 도전하려고 할만큼 斷乎한 태도를 지녔고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노인의 意志力을 보다 더 명백하게 예증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노인의 독백이다.

Fish, I will stay with you until I am dead. (p. 45)

Fight them(sharks). I'll fight them until I die. (p. 104)

"I'll kill him though." he said. "In all his greatness and his glory." Although it is unjust, he thought. But I will show him what a man can do and what a man endures. (p. 57)

이처럼 Hemingway의 세계는 전쟁의 세계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戰爭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暴力으로 얼룩진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상태라는 것이다. 人生도 하나의 전쟁, 다시말해서 鬪爭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고난을 면치 못하며, 이같은 인간의 고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規範인 것이다. 따라서 Santiago의 신념과 용기와 인내력이라는 이 특징들은 Hemingway의 價値體系에 있어서 주요한 美德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Hemingway 자신이 일생을 통해 체득한 人生觀의 집약적 표현인 "stoicism"이며, Santiago라는 作中人物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老人이 생각하는 삶의 자세란, 自然의 秩序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에서 "destroy"는 당할 수 있으나 "defeat"는 당할 수 없는 영원한 투쟁인 것이다. 따라서 상어의 짓과 같은 강도행위에 대하여는 老人은 증오를 느끼는 동시에 용감히 맞서서 싸우는 것이다. 이는 惡에 대한 善의 투쟁이기도 하다. 상어는 일종의 악의 symbol인 것이다. 이러한 老人의 관념은 어떤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것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극히 당연한 현실문제인 것이다. 이는 동시에 Hemingway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다. 지칠줄 모르는 鬪志의 生活, 삶과 죽음의 葛藤, 이것들을 둘러싼 勇氣와 挫折의 인간 드라마속에서 끝까지 Santiago가 marlin을 잡고, 상어와 死鬪하면서까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大漁를 끝까지 항구로 끌고 들어온 Santiago의 克己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용기의 극치를 발견할 수 있다. 육지에 도착하여 완전한 敗北者의 모습으로 돌아온 老人에게 많은 사람들이 嘲笑를 보내고, 노인도 "They beat me, Manolin." he said. "They truly beat me." (p. 112)라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는 것을 Manolin少年은 "He didn't beat you. Not the fish." (p. 112)라고 강력히 반대하자 이에 노인도 "No, truly. It

was afterwards.” (p. 112)라고 소년의 말에 동조한다. 이들의 대화속에서 우리는 노인과 소년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友愛精神과, 또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소평가도 하지 않는 實存 그대로의 소박하고 진실된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빼만 앙상히 남은 大漁, 老人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한 허무한 투쟁이었고 고독한 체험뿐이었지만 다음에 나오는 소년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虛無를 딛고 일어설려는 모습, 즉 허무의 체험뒤에 오는 삶의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다.

We must get a good killing lance and always have it on board. You can make the blade from a spring leaf from on old Ford. We can grind it in Guanabacoa. It should be sharp and not tempered so it will break. My knife broke. (p. 113)

앞으로의 고기잡시를 위하여 좀더 나은 도구를 준비하자는 老人의 말에서 우리는 또한 포기하지 않는 삶에서 執念을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때 *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타나고 있는 “stoicism”은 “stoic endurance”로 破局을 견디어내는 消極的 stoicism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아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充實感과 歡喜를 느끼며,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하는데 源泉이 되는 積極的 stoicism도 보이고 있다. 老漁夫 Santiago의 육체는 노쇠했을지 모르나 그의 정신은 不屈의 것이었다. 가난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난관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가 또한 Santiago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편 그에게는 *For Whom the Bell Tolls*의 Robert Jordan 같은 영웅주의적 도취는 발견할 수 없다. Santiago 노인에게는, 人間은 본래 孤獨한 存在이며 결국 敗北할 수밖에 없는 運命이라는 체념이 있다. 배에서 내릴때 “아, 피곤하다.”는 독백은 바로 그러한 內的 認定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A Farewell To Arms*의 Frederic Henry와 같은 絶望의 탄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마치 미국초기의 개척자와 같은 “frontier spirit”를 가지면서 동시에 인간의 영원한 비극적 운명을 達觀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달관위에선 마음의 평정과 용기있는 인내야말로 Hemingway가 최후에 도달한 정신의 귀착지이다. 이러한 달관은 인간으로서의 성실성과 겸허, 인내, 용기 등을 토대로 한 “stoicism”의 哲學이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타나는 이같은 “stoicism”의 측면은 Hemingway의 自敘傳的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의 신념이 그의 文學의 主題가 되어 이 작품에 흐르고 있는바 自然에 도전할 수 있는 무한한 힘, 自然에 대한 人間の 愛情, 人間과 人間사이의 따뜻한 友愛를 표현하고 있고, 또

한 人間의 삶 자체가 영원한 고독과의 투쟁이지만, 이 고독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버티므로써 삶에 대한 의욕을 포기하지 않는 意志力과 不敗의 精神의 소유자인 Santiago 를 그리고 있는데 이는 Hemingway 의 思想의 변천중에서 최고도에 달한 “stoicism”의 달성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Hemingway 주인공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한결같이 불변하는 행동윤리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행동윤리에 의하면 여하한 종류의 對決에 있어서도 문제는 勝과 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후까지 장엄하게 싸웠는가에 그 척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긴장과 고통의 생활속에서도 남자를 의연하게 만들어 주고, 일시적 충동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별시켜준다. 충동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대개 무절제하고 겁장이이며, 팽팽하게 긴장된 인생의 순간을 사는데 어떤 불가침의 행동 법칙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規範대로 사는 주인공이야말로 克己의 人物들이다. 정정당당하게 도전에 직면하지 못하고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자는 동정을 받지 못하며, 반대로 도저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역경에서 또는 죽음의 도전앞에서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불굴의 용기를 보이는 자는 용기있는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는다. Santiago 가 가난하고 고독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곳곳하게 견디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용기의 모델이다. Santiago 가 망망대해에서 외로이 홀로 항해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러한 깨끗한 정신의 발로에서 이다. 이점에 대하여 Waldhorn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ll of mortality is here, and courage, and love, and for the last time, the possibility of renewal. The sea is a vast universe, but although Santiago sails alone, he feels neither isolated nor alienated. To be at one with nature is easier than with a woman or society.²⁶⁾

격렬한 투쟁에서 생명의 긴장감을 느끼고, 목적의 현실에 대결해야 하는 인간에게 Hemingway 는 일종의 moral 를 제시하고 있다. 이 moral 은 삶과 죽음에 영긴 격렬한 행동속에서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의식되는 moral 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인공 Santiago 가 보여주는 moral 은 현실적인 실용성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Hemingway 가 말하는 勝과 敗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과정속에서 가치의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死力을 다하여 획득한 marlin 의 고기를 상어들에게 다 빼앗기고 항구로 돌아온, 지칠대로 지친 Santiago 를 不敗者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Manolin 少年과의 진정한 友愛精神에 깃든, 人間의 相互依存과 紐帶精神을 밑바탕으로 한, 진정한 克己主義와 汎愛精神속에서만 길러질 수 있는 精神的 特性인 것이다.

26) Arthur Waldhorn, *op. cit.*, p. 198.

IV. 結 論

지금까지 本稿에서는 Hemingway의 代表作品의 하나인 *The Old Man and the Sea* 속에 나타난 여러 象徴들과 Hemingway의 文學思想의 중요한 요소인 Stoicism, 그리고 주인공 Santiago의 人間과 自然에 對한 友愛精神과 汎愛精神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타난 상징들을 살펴볼 때, 먼저 바다는 人生의 場, 상어는 惡, Manolin은 勇氣의 源泉的인 供給者로서의 lost youth에 대한 憧憬, DiMaggio는 giver of strength and vitality, lions는 givers of strength and purity를 상징하며, 이것들은 모두가 주인공 Santiago의 stoicism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Santiago는 이러한 克己를 통하여 얻어낸 道德的인 勝利者인 동시에 苦痛받는 Christ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The Old Man and the Sea*는 Hemingway의 文學精神의 最後의 歸着點을 이루는 동시에 또하나의 思想的 탈피를 보여주는 그의 文學의 總結산이기도 한 것이다. 망망대해에서 Santiago와 marlin 사이에 펼쳐지는 3일간의 극적인 對決, 이는 Hemingway가 나타낸 人間の 勇氣와 stoicism의 表象이며, 이 용기와 극기가 人生의 積극적인 가치로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바다’는 ‘老人’이라는 個人을 초월한 ‘全體’로서 나타나며 老人이 되돌아 가게되는 永遠한 歸郷으로 意識된다. 여기서 비로소 Hemingway는 “거기서 싸우는 장소”인 동시에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바다”를 얻게된다.

이와같은 바다의 二重性은 大漁의 二重性과도 서로 相通한 것이며 그리하여 大漁는 “敵”인 동시에 “벗”이 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人生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敗北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自己”의 確認, 그와같은 人間性的 根源的인 構造를 이 作品은 잘 파헤치고 있으며 바로 거기서 Hemingway는 人間の 榮光을 發見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사로잡은 marlin이 상어떼에게 뜯어 먹히듯 끝내는 짓밟힐 운명에 놓여 있어 人生은 그 자체가 悲劇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숙명을 허무적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克己的 노력을 다한 老人의 겸허한 만족감으로 묘사했다. 뿐만 아니라 老人과 少年 사이의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있는 격조높은 人間の 相互信賴에 바탕을 둔 友愛精神

과 또한 大自然의 일부로서의 바다와 한마리의 새에 대해서도 愛情을 갖는 汎愛精神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를 통한 강한 삶에의 意志를 느낄 수 있으며, 苦痛을 체험한 후에 오는 살고싶은 意慾, 이것이 作品속에 구현된 Hemingway 의 삶의 意味인 것이다. 또한 이 作品에서 自然과 人間의 참모습을 볼 수 있으며, 結果는 슬프지만 마음만은 굽힐 수 없는 것이 Santiago 의 不敗精神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人生도 결과적으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처럼 슬프고 虛無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배위의 고독한 老人이 바다속의 고기와 生命을 걸었던 순간순간은 엄숙하고 진지한 삶의 시간이었으며 勇氣와 克己精神과 不敗精神에 넘친 것이었다. ‘人生은 結果가 아니라 過程이다’라는 教訓을 Hemingway 는 그의 作品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Bibliography

- E. Hemingway, *For Whom the Bell tolls*.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3.
- _____, *The Old Man and the Sea*.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68.
- _____, *The Snows of Kilimanjaro and Other Stories*. Harmondsworth : Penguin Books, 1974.
- _____, *The Sun Also Rise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54.
- Alfred Kazin, *Bright Book of Life*.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 Arthur Waldhorn, *A Reader's Guide to E. Hemingway*. New York : Farrar, Straus and Giroux, 1975.
- Brumm Ursular, *Symbolism and the Novel : The Theory of the Novel*, ed. Philip Sterick, New York : The Free Press, 1967.
- Carlos Baker, *Hemingway : The Writer as Artist*. New York : Princeton Univ. Press, 1972.
- _____, *Ernest Hemingway,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2.
- Clinton S. Burhans, Jr., *The Old Man and the Sea : Hemingway's Tragic Vision of Man*, ed. Carlos Baker, *Hemingway and His Critics*. New York : Hill and Wang, Inc., 1962.
- David D. Galloway, *The Absurb Hero in American Fiction*. Austin : Univ. of Texas Press, 1970.
- Keiichi Harada, *The Marlin and the Shark*, ed. Carlos Baker, *Hemingway and His Critics*. New York : Hill and Wang, Inc., 1962.
- Melvin Backman, *Hemingway : The Matador and the Crucified*, *Modern Fiction Studies*, 1955.
- 金秉喆, 「헤밍웨이 文學의 研究」, 서울 : 乙酉文化社, 1968.

ABSTRACT

A Study on Stoicism and Philanthropism Shown in *The Old Man and the Sea*

Lee Young-jin

Dept. of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ssify symbols and to study the stoicism, brotherhood and philanthropism in *The Old Man and the Sea*.

I classified Hemingway's symbols on the basis of actual use in his "*The Old Man and the Sea*" as follows: The symbol of the Sea is the place of life. The shark is vice. Manolin is the yearning for the lost youth. DiMaggio is a giver of strength and vitality. Lions are givers of strength and purity. Santiago is a morally triumphant and the crucified Christ.

The Old Man and the Sea at first seemed like a simple story of an aged fisherman who had every kind of bad luck. He had gone eighty four days without a fish. The boy who usually went with him had been forbidden to go again because of the old man's bad luck. Alone, he finally catches a giant fish too big for him to get into the boat. He tows it two days and nights and is almost pulled into the water. He manages to harpoon it and lash it to the boat, but sharks eat it and when he reaches home he has only the skeleton. It can also be read as an allegory of man's struggle with life or the artist's struggle with his art.

In *The Old Man and the Sea*, Santiago always thinks of sea as feminine and as something that gives or withholds great favors. Santiago emphasizes lots of ideals, courage, and endurance. As Carlos Baker says in his criticism, we find Hemingway's stoic vision through the way of fishing life of this old man. He loses the battle he has won, but holds to the senses of having fought to the limits of his strength, and of having shown what a

man can do in hard life.

The love of Manolo for Santiago is that of a disciple for a master in the arts of fishing. It is also the love of a son for an adopted father. And Santiago has a philanthropy and loves even one bird.

There are many forms like marlin and shark in the human experience. The writer assumes that Santiago shows us what a man can do and what a man can endure. Santiago believes that man is not made for defeated, and that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